

건축틈새\_맑음 : 안녕하세요. 저는 김맑음이고 이 친구는 저와 같이 융합전공을 하는 김효경입니다. 아키렉처 강연으로 홍대에서 해주셨을 때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sup>1</sup>

저희가 3월에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쉐어프로젝트>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공간을 나누어서 예술가들에게 일정기간 임대해주는 작업입니다.<sup>2</sup> 그런데 저희의 경우는 따로 공간을 임대받지 않고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다시 임대해서 강연을 3번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저희의 프로젝트 내용은 <용적률 게임>에서 용적률 개념과 99%의 건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출발하여서, 이 출발점이 되는 분을 뵈고 싶었습니다.<sup>3</sup>

김성홍 교수님 : 그러면 프로젝트로 무엇을 하셨나요? 강연을 했나요?

건축틈새\_맑음 : 저희는 강연보단 담화를 하였습니다. 같은 레벨에서 이야기하고, 쌍방향적으로 질문도 나누었습니다. 용적률 게임 자체가 건축가들이 창의성을 발견하는 내용이라면, 저희는 건축물 안에 예술가들에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디자이너 그룹, 예술가, 큐레이터로 하여 세 번의 담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건축틈새\_효경 : 특별히 교수님께 여쭙어 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용적률 게임> 전시를 통해, 99%의 건축 속에서 건축가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아왔는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서는 99%의 건축이 나아갈 방향성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김성홍 교수 : 음.. 사실 저는 99%와 1%의 비유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뭔가 가르는 거 같기

---

<sup>1</sup> 아키렉처는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주관 팀으로, 건축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진행하는 팀이다. 2017년도에는 <한국, 99%의 건축> 강연시리즈를 진행하였다.

<sup>2</sup> 쉐어프로젝트는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2015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는 서교예술실험센터의 공간을 쉐어하여 작가들이나 기획자들에게 무료로 임대하여주는 작업이다. 2017년도 상반기 쉐어프로젝트에 건축틈새는 참여하였다.

<sup>3</sup> 용적률은 건축물 각층의 총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그 기준이 각기 다르며, 용적률이 높을 수록 건축의 총 바닥면적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기에, 부동산 가격이 더 높다. (본 각주는 『부동산용어사전』, 방경식, 2011, 부연사. 를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도 하고, 그 수치가 그 뒤에 깔린 날카로운 의미들이 있어서요. 글썄요, 저는 99%의 건축이 이래야 한다 혹은 저래야 한다 보다, 건축이라는 영역은 시각(visual) 예술과는 달리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해요. 물론 예술도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생존하지만, 클라이언트가 없는 상황에서도 예술가들의 모티베이션(Motivation)이 있을 수 있죠. 반면에 건축은 주문 생산하지 않으면 존립 기반 자체가 사라져요. 그래서 건축은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고, 현실 속에서 작업을 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죠. 바깥에 나가 현실을 마주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비로소 넘어서 작품이란 걸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의 수는 굉장히 드물죠. 극소수만이 넘어가서 소위 아티스트, 건축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만 하지, 이전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99%의 건축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그 시장에 대해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건축도 바탕이 있고 허리가 있고 여러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무언가 하나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스타만 탄생 시킬 수 없잖아요. 그 아래엔 많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허리가 튼튼해지려면 이 밑에 있는 99%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1%가 나오지 않는 구조이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인정하자. 그런거죠.

우리 주변의 건축은 우리가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만 생각하고 현실에 나갔을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이 있는데 그 관계와 연결고리를 어떻게 할지 대부분 모르니까. 그래서 배반감을 느끼거나, 엄청 좌절하죠.

건축틈새\_맑음 : 건축틈새에 한 명이 건축과인데요. 그 친구가 자기가 인턴을 한 경험이 있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너무 와 닿았다고 하더라구요. 학교에서 저희도 수업을 듣지만 건축이론에서 배우는 것들 중 많은 것은 휘황찬란 하니까요. 저희는 이론을 하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실무로 나가는 입장에서는 충격이 큰 거 같았어요

건축틈새\_효경 : 저는 여쭙어보고 싶은게 저희가 두번째 담화에 차지량 작가를 불러서 <누홈>이라는 작품을 보았어요. 이 작업은 사람들을 데리고 아직 분양 중인 아파트나 빌라에 몰래 들어서 자고 오는 작업이었어요. 결국 작가가 질문한 것은 주거에 대한 상상력이 우리가 많이 굳어진거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들어 '나는 아파트에 살아야되'와 같은 생각들이요.

교수님께서 <용적률 게임>에서 99%의 건축에 대해 질과 양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건축은 클라이언트가 있어야지만 자라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거에 대해서 요즘엔 셰어 형태도 있고,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처럼 다른 이들과 함께 사는 다양한 작업들을 보았는데. 아직도 많은 클라이언트들은 주거에 대한 인식이 그 만큼을 못 쫓아가는 현실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같이 가져야지 '99%의 건축'이 질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현실화 시킬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인식이 어떻게 하면 더 자라날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김성홍 교수 : 글썄요.. 하하 저는 아주 소박한 이야기예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건축은 엄청난 자본과 시장경제에서 작동되는 것이잖아요. 건축가들이 이렇게 하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그 큰 시스템 속에서 정말 힘없는 존재들이잖아요. 피라미드의 제일 밑바닥에서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건축은 결국 모더니즘(Modernism)의 언어이거든요?<sup>4</sup> 그러면서 우리의 언어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수 천년 동안 이어왔던 목 구조의 건축 언어를 잃어 버린 거예요.<sup>5</sup> 그래서 우린 지난 100년동안에 서양에서 만든 그 언어를 배우는데 너무 급급 한 거예요. 항상 배우는 자세, 그리고 빨리 바뀌어야 하고. 또 배워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것을 들여다보고, 어떤 자생적인 언어를 만드는 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회는 계속 경제 시스템이 바뀌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의 현실을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었어요.

이제는 내가 서있는 현재, 지금에 대해서 지금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준비와 역량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현재를 들여다 보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둘러 쌓인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라는 태도를 가지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예요. 조선시대 겸재 정선이나,<sup>6</sup> 르코르뷔지에에서 무언가 늘 찾아서 우리의 언어로 하려 하는데 이게 잘 안되죠.<sup>7</sup> 오히려 그냥 주변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찾는 것도 저는

---

<sup>4</sup> 모더니즘은 20세기 근대화 및 산업혁명과 함께 활발히 이루어진 담론으로, 건축에서는 이것이 재료와 구조적 기술, 실용성에 집중된 양식으로 표현되었다. (추가 예정)

<sup>5</sup> 과거 한국 건축의 목구조의 건축 언어로 대표적인 것은, 기둥, 도리, 보, 서까래 등이 있다.

<sup>6</sup> 겸재 정선은 18세기 조선에 활동하였던 인물로 진경산수화의 대가라 할 수 있다. 그는 기존에 관념적으로만 그려내었던 산수화를 넘어서, 실재 풍경을 보고 그리는 진경산수화라는 양식을 열어내었다.

<sup>7</sup> 르코르뷔지에는 19-20세기에 활동한 대가적인 근대 건축가이다. 기존의 벽 중심의 건축 구조를 벗어나 필로티를 활용한 기둥 중심의 건축 구조를 통해 내외 유입이 유동적이고 자유로운 평면과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다. 고 생각해요.

탁선산 씨라고 『한국의 정체성』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예요.<sup>8</sup> 그 분 책에서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은 한국인들은 시원성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sup>9</sup> 즉 '오리지널'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조 할매 김밥, 원조 할매를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문화는 다 옮겨 다니는 거 아니예요? 서로 주고 받았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받아 드릴 때 어떻게 바꾸었냐 인데. 원조에 굉장히 집착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성이라는 것을 간과한다고 해요. 아무리 좋다 해도. 그것이 대중성이 없다면 그건 문화적 DNA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과격한 이야기일수도 있는데. 그래서 판소리에서 우리의 얼을 찾는 것 보다, 이미자의 뽕짝 속에서 얼을 찾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고 해요. 왜냐면 이미자의 뽕짝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면 그 시대의 무엇인가 DNA를 건드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선시대 검제 정선이나 판소리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현재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만들어진 많은 것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싸구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나름의 경제적인 논리가 있고, 사람들이 편리했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준과 수준이 그것 밖에 안되서 그렇게 만들어 낸 거 아니예요? 그런 거죠. 결국 건축도 미술도 추구하는 건 창조적인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것의 목표가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만 ,그것을 접하는 태도의 차이를 조금은 바꿀 수도 있지 않나 조심스레 제안해 보는거죠.

우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없는 것인가. 그리고 그 정도 우리의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았을까? 예술의 풀도 그렇고 건축의 풀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300-400명 되는 건축가들이 실력은 좋은데 기회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마 서교예술실험센터에 가도 그럴거 같아요. 정말 역량이 있는 작가들이 있는데..

건축틈새\_효경 : 현실의 대중성의 이야기와, 클라이언트의 이야기, 99%의 이야기,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창조적인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과정들을 보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았어요. '나는 주거는 이래'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것이 편리하고 좋은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건축가가 창조적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 수용하지 못하는 많은 인식들이 있다고 보아요. 그런데 그런 인식 속에서 조금씩 창의성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서로 주고 받는 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이런 주거도 있구나' 하면

---

설계하였다.

<sup>8</sup> 본 글의 『한국의 정체성』이라는 책은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책세상, 2000.'임을 밝힌다.

<sup>9</sup> '시원'이란 물체나 현상의 처음을 의미한다.

서 조금씩 조금씩. 엄청 큰 거를 한번에 스펙타클하게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면서 그것들이 점차 변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김성홍 교수 :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발굴하거나, 찾는 거죠.

건축틈새\_맑음 : 저는 전시 기획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대학 때부터 전시를 보면 어떤 거를 의도했는지 유심히 보아왔어요. 그래서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기사나,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제가 저만의 생각을 할 때 여기서 큐레이팅을 하신 분이 이후의 건축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끌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sup>10</sup> 그래서 제가 나중에 큐레이팅을 해도 그런 식으로 전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성홍 교수 : 아.. 감사합니다. 알드로 아라베나가 '전선에서 알리다'라는 글을 제안했을 때 전략적으로 정반대로 가기로 생각했어요.<sup>11</sup> 이렇게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한 거죠. 그리고 이 주제를 갑자기 들고 나온 건 아니에요. 2012년에 제가 용적률 게임이라는 글을 썼어요. 중앙일보에 2년 정도 한 달에 두 번씩 썼는데, 그 중 한 꼭지였어요.<sup>12</sup>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어요. 그래서 머리 속에 있었는데, 베니스 비엔날레 예술 감독 선정하는 것을 보고 나서 한국의 전선..은 이게 아닐까 하면서 하게 되었죠

건축틈새\_맑음 : 사실 저희도 <한국 99%의 건축 그리고 틈새의 예술>에서 임대한 땅을 표시하려고 빨간 마스킹 테입으로 구획을 나누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모르고 앉아서 이야기를 듣다가 나중에 저희가 빨간 선이 사실 임대 받은 땅이었고, 그리고 서교가 홍대 제일 땅값 높는데 있어서 폐관된 위기가 많았음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의 현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

<sup>10</sup> 베니스 비엔날레는 1895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베니스에서 2년에 한번씩 열리는 미술전시회이다. 각 국가관별로 열리는 것이 특징이다.

<sup>11</sup> 알레한드로 아라베나는 김성홍 교수가 참여했던, 15회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이다. 알레한드로 아라베나는 15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주제를 '전선에서 알리다(Reporting From the Front)'로 두었다. 이는 각 국가와 인류의 상황 속에서 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드러낸다.

<sup>12</sup> 2012년도 당시 중앙일보에 김성홍 교수가 쓴 용적률 게임에 대한 글은 '김성홍, "[삶의 향기] 용적률 게임", 중앙일보, 2012.08.07'이다.

다른 이야기로, 예술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 흥미로웠던 것들이 미술은 플라톤(Platon)부터 철학 엄청 배우고 들뢰즈(Gilles Deleuze)의 이론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중요한가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는데요.<sup>13</sup> 실제로 건축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많이 오가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게 되게 매력이 있었는데 조금 시간을 더 지내다 보니 현실적인 자본과 법을 엄청 공부하더라구요. 그런 것들 사이에서 설계하면서 예술과 다르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김성홍 교수 : 음 저는 그래도 플라톤도 읽고, 푸코(Michel Foucault)도 읽고, 들뢰즈도 읽는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sup>14</sup> 우리가 생각하는 힘과 크기와 폭을 넓히기 위해서. 현실은 아무리 용적률을 들여다봐도 이야기 안 해주거든요. 그 안에 사실 답이 있지 않죠. 우리가 그를 넘어서 가야 하는데 이것에 치여서 못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전히 저는 그런 것들을 읽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어디 있는지 지금. 그걸 이야기해주지 않는게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왜 플라톤을 읽어야 하는지. 왜 들뢰즈를 읽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건축틈새\_효경 : 되게 99%의 건축이 교수님께서 사실 방향성을 명확히 콕 찝어서 이야기해주시지 않으시지만 이 전시나,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99%의 방향성이 나아가기 위한 되게 중요한 중간단계. 나아가야 하는 꼭 기반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것이 그 자체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자체로써, 존재로써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고민할 수 있고, 대중 혹은 클라이언트들도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했어요..

김성홍 교수 : 감사해요.. 음.. 스케일이 우리가 50년동안 해온 개발 방식은 워낙 덩어리가 커서, 우리가 거기에서 영어로 표현하면 인게이지(engage)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sup>15</sup> 모든 예술의 행위라는게 나의 몸으로 그것을 engage하려면 그 스케일이 나에게 맞아

---

<sup>13</sup> 플라톤은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에서 활동했던 철학자로, 소크라테스의 제자로서 『향연』 등의 저서를 남겼다. 들뢰즈는 20세기 후반 프랑스 철학자로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천 개의 고원』, 『차이와 반복』 등이 있다.

<sup>14</sup> 미셸 푸코는 20세기에 활동한 프랑스 철학자로 후기구조주의 대표적인 철학자이다. 대표적인 저서로 『광기의 역사』, 『감시와 처벌』 등이 있다.

<sup>15</sup> 필자는 본 글에서 인게이지(Engage)를 체득됨 혹은 받아드려짐 으로 의역한다.

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기 10만평 되는 쇼핑몰이라던가, 아파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젊은 아티스트들이 결국엔 이면도로로 나와있는 건축을 할 이유도, 그게 우리가 engage할수 있는 스케일이 있잖아요.<sup>16</sup> 그런데 이것도 살다 보니 경제가 이렇게 망가진 거죠.

건축틈새\_효경 :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강연을 하시면서 던지시 던지면서 가셨어요.<sup>17</sup> 어떤 지역을 건드리면 안 되는 지역이 있고, 또 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어요.<sup>18</sup> 그 지역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건드려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 걸 들으면서 교수님의 그 기준점은 무엇일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김성홍 교수 : 음.. 저는 뭐랄까. 연구를 안하고 드리는 답변인데, 재생이라는 것은 도시가 진짜 쇠락하는데 필요하거든요? 어떤 데는 막 슬럼화가 되서 자본이 들어가서 살려내야 하는데. 서울은 땅값이 안 떨어져요. 가만히 두어도 되요. 재생을 하면 땅값을 부축이는 거죠. 대표적으로 성수동이나.. 홍대 이런 것들 정말 재생이 필요한 곳은, 저기 인천, 부천, 수원 밑에 내려가면 막 혼란스러운 풍경 스케일도 이걸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곳에 재생과 손질이 필요하지. 성수동이나 이런 데는 가만히 두어도 자본이 알아서 하고 있는데, 괜히 공공이나 이런 데가 들어가면 땅값만 부축이니까.<sup>19</sup> 그런데 이것도 저의 아마추어적인 발상이에요.

건축틈새\_맑음 : 그런데 홍대는 저희는 홍대를 오래 다니면서 너무 급격히 바뀌어서 모를 수가 없었는데요. 작년에 잠깐 홍대가 관광특구가 될 정책이 잠깐 되었다가 취소가 되었어

---

<sup>16</sup> 이면도로는 큰길이랑 반대로 보통 보도와 차도 구분이 안되는 작은 길을 말한다.

<sup>17</sup> 본 글에 강연은 아키렉처 주최의 <한국 99%의 건축> 강연 시리즈를 의미한다.

<sup>18</sup>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도시의 오래된 지역이 번성하면서 사람들이 몰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sup>19</sup> 서울시는 2014년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성수동 일대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서울 성수동·암사동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본격화 2018년까지 마중물 사업비 각각 100억 원 투입”, 도시미래신문, 최재영 기자, 2017. 05. 12.’를 참조)

요.<sup>20</sup> 그 잠깐 사이에 호텔이 다 지어지고 있더라구요. 홍대 쪽을 8년동안 보아왔는데, 지금의 홍대가 8년전과 굉장히 달라지 거 같아요.

건축틈새\_효경 :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교수님께서 99%의 건축에서 질과 양에 대한 싸움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문화예술에서도.. 어찌되었든 예술가들이 들어가면은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내부에 경제논리가 들어오니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서교예술실험센터도 그렇게 되었죠. 이에 대해 저희도 고민을 했던 게 이거 너무나 당연하게 흘러가는 자본 논리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의문점을 제시하고, 서교예술실험센터도 문화예술에 많은 기반 점이 되는데 사라질 뻔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이야기 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관광 특구가 미루어진 것들, 서교예술실험센터가 지켜진 것에는 문화예술계의 협동조합이나 어떤 연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켜지는 것들이 있었어요.<sup>21</sup> 그런데 저의 생각은 <용적률 게임>에서 말씀하신 질과 양의 첨예한 힘처럼, 서로 간의 밀고 당기기가, 문화 예술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효용성이 있을까 고민을 하지만, 건축의 양적인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질적인 이야기를 양상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대한 의의를 보았어요.

김성홍 교수 : 네.. 렘 콜하스(Rem Koolhaas)라는 사람 아시나요?<sup>22</sup>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쓰잖아요. 건축이 할 수 있는건 별로 없다. 우리가 굉장히 마치 세상을 구하는 윤리적인 영웅 같은 태도 자체가 너무 허무 맹랑하다고 조롱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위치라는 게 그

---

<sup>20</sup> 홍대 관광특구 사업은 2016년도 마포구에서 서교동, 상수동, 합정동 일부를 포함하는 홍대 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대한 홍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반발로 보류되었다. (『“홍대 문화관 광특구’ 반대 예술인들 릴레이 콘서트”, 서울신문, 홍지민 기자, 2016. 11. 28.’ 참조)

<sup>21</sup> 협동조합이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뜻을 같이하고 힘을 한데 모아 스스로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경제조직을 의미한다. 박원순 시장 이후로 더 활발히 추진되었다. 2016년도 당시 관광특구를 막아는 협동조합은 홍우주이다. (『한국민족 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참조.)

<sup>22</sup> 렘 콜하스는 현 생존하는 건축가이자, 현대 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네덜란드 출생이며, OMA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광기의 뉴욕: 맨해튼에 대한 소급적 선언서』 (1978), 『S, M, L, XL』 (1995) 등이 있다.

것을 보고 불합리하고 나쁘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더 큰 건 자본주의가 아닐까요?

건축틈새\_맑음 : 처음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되게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터디를 하며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공간들을 답사를 다니고 했는데, 건축 대 친구 중 한명이 이렇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이것을 해서 어떤 사람은 새로 건물을 짓고, 건축가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오는거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한대 맞은거 같더라구요.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김성홍 교수님 : 음.. 전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용적률 게임의 건축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건축가들이 계속 손을 대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페러독스죠.

건축틈새\_효경 : 예술도 마찬가지로요.

김성홍 교수 : 그렇죠. 음. 결국엔 정도의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게 외줄 타는 거라 이야기 해요. 이쪽으로 가면 나쁜 자본주의 저쪽으로 가면 선한 무언가가 되는데, 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곡예 하면서 생존 하는 거죠. 이게 저희는 솔직한 표현 같아요.

현실에서 쉽지 않은 거 같아요. 결국 좁은 틈새 속에서 어떻게 작은 차이를 만들어 내야 하는가 같아요. 그게 아라비어나 이야기 중에 '우리가 디자인을 통해서 어떻게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이게 설득력있게 느껴졌어요.

건축틈새\_효경 :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가진 생각이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들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욕망 만으로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없다고 해주셨던 말씀이 공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늘 그 사이에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사는 사람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들 앞에서 무어라 이야기 하기가 어렵고, 그 안에 참여하게 그 겨루기 속에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김성홍 교수 :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미약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가 만드는 작은 물건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아파트에 저층 부에 재료를 바꾸었더니 사람들이 좋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건축틈새\_효경 :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이야기는 사실 자본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작업을 했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는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그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 이 도시의 모든 이들이 생각하는 자본에 대한 마음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99%의 건축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저희가 예술을 하면 당연히 자본이 따라 들어오고, 99%의 건축을 질적으로 가면 자본이 따라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주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나, 생각들, 혹은 상상력을 넓혀준다면. 혹은 예술의 작업들이 이 예술의 가치가 상상력들을 넓혀준다면 자본의 흐름이 이 안에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김성홍 교수 : 그럼요. 그런데 이런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공간의 재서열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은 다르게 아니고 임대에 의한 공간의 재서열화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는 건데, 그 임대에 대해서 조세의 정의가 살아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과연 합당한 임대료를 받아서 합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가.

건축틈새\_맑음 : 그래서 건축과 그 친구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기후나 풍토가 비슷한데 일본의 경우에는 건축가들의 상상력을 보여주는 작업이 많은데, 왜 한국은 그렇지 않을까? 한국의 건축주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면이 있는가? 이렇게 궁금해 하더라 구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의 건축주의 문제 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질문을 받으면서 한국 실정이란 것과도 더 관련이 있을 것 같았어요

김성홍 교수 :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일본에 비해 훨씬 시공비를 더 적게주어요. 일본의 경우는 건축을 하나 주면 아주 가난하지만 생존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3-5개를 해야 되요. 그래서 질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한국 건축가가 불쌍하긴 한데 가난한 예술가들에 비하면 저희는 부르주아죠.(하하)

건축틈새\_효경 : 제가 친한 건축대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이야기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사실은 그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변해야지 따라가는 부분인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들 입장에서든 당연히 좋은 건축을 하고 싶고, 창의적인 건축을 하고 싶고 그것은 우리가 자본이라는 베이스 안에서 작업을 하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자본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 이런 현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공감이 되었어요. 건축가들의 99%의 창의적인 작업들과 예술가들이 고민을 하고 서교의 이야기를 드러냈던 작업들이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이라도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건축틈새\_맑음 : 저희도 방향성까지 제시하지는 않고, 빨간색 테이프 안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여기가 이 공간이 원래는 전시 공간이었는데 이만큼의 땅을 우리가 빌려서 앉아있는것이라는 인식을 하는게, 내심 바란게 그 담화에 참여한 이들이 자신의 집이나 다른공간에 갔을때도 이땅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본의 논리 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했었어요.<sup>23</sup>

저는 용적률 게임 이야기보면서 조금 슬픈점이 실제로 전시도 하고 작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도시 관련해서 사진작업을 하고 있고, 2년정도 재개발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물이 무너졌네 정도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휴먼스케일보다는 큰 것이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하 는이들이 조금 부럽긴 했어요. 저는 사진을 찍어서 평면에 프린트를 하는데 건축은 더 크고 돈도 더 만지겠다 했어요. 그런데 용적률 게임을 봤을 때 스타 건축가들에게 제가 익숙해져서 일상적인 건축을 하는, 그리고 일상적인 건축을 하는 건축가들이 있다는것조차도 인식을 못한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전시를 보면서 이 친구들도 아등바등 살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부럽다고 너희는 돈의 스케일이 다르지 않냐 했는데, 별반 다른 입장이 아니었어요 (하하)

김성홍 교수 : 그래도 건축가들은 와인 먹잖아요. 하하 예술가들은.. 와인 마셔요?

맑음 : 네 하하

김성홍 교수 : 아 그래요? (하하) 음 제가 거꾸로 여쭙어보면 요즘에 베를린에 많은 아티스

---

<sup>23</sup> 본 글에이야기하는 담화와 공간을 <한국, 99%의 건축 그리고 틈새의 예술>을 의미한다.

트들이 물리잖아요. 왜 그래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건축틈새\_맑음 : 일단은, 저도 베를린에 아직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저희과 친구들도 베를린에 많이 갔어요. 완전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철학을 공부하면 다들 독일 철학 쪽으로 많이 가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독일이 학비도 싸고 외국인 학생들에게 대우가 좋다고 하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엔 9월부터 파리에서 지내요. 아티스트 레지던시에서 6개월정도 지내는데, 그런데 거기 저는 레지던시에서 집값의 경우 안심을 한 상태인데, 그 주변에 사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월 200만원 정도 들더라구요. 그래서 학비는 없는데, 생활비로 미국 학비처럼 쓴다고 하더라구요.

김성홍 교수 : 카셀 도큐멘타 그런 영향도 있죠?<sup>24</sup> 그리고 독일이 젊은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워낙 많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집값이 싸고, 그것도 고도의 정책이 아닐까요?

맑음 : 교수님이 말씀하실때 한국의 건축을 집중할때 전통이 아닌 현대쪽으로 눈을 돌릴수 있다고 하셨는데, 전통에 눈을 돌리고 있는게 파리고 현대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독일 같아요. 프랑스는 정책적으로 옛날 집을 부수기도 힘들다고 들었어요. 제가 사진 작업을 하는데, 서울 보면 밀집되어있잖아요. 거기에 하나의 커다란 건물을 없애는 작업을 해요. 그 장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경험에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되게 보고 싶었거든요. 이것이 그 사람의 자리가 비워지고 나서 그 사람의 생각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티브 삼아 작업을 했는데, 그것을 비워내려면 위에서 조감도를 찍어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서 프랑스에도 높은 건물이 있냐고 하니, 프랑스에서는 정책적으로 고도도 다 낮게 하고 개발자체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김성홍 교수 : 그렇군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5학년 학생들과 비슷하겠네요. 안 그래도 그 친구들과 8시까지 수업했는데, 고민이 참 많겠네요

좀 힘들지만 저는 더 관촬아질 꺼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작업들을 하는 이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조금씩 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대가들만 생겨 나는 것 말고도. 그런 작업들이.. 또

---

<sup>24</sup> 카셀 도큐멘타는 독일 카셀에서 5년에 한번씩 열리는 미술행사이다. 195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주로 개념미술과 미니멀아트를 주로 보여준다.

두 분 말씀 하시는 것 보니까 많이 생겨 나는 것 같아요.

건축틈새\_효경 : 서교예술실험센터는 서울시 창작 지원 사업인데, 최근 이러한 사업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서교예술실험센터도 스펙타클 한 공간은 아니고 시작하는 이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공간이에요. 민간 거버넌스나 공동위원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sup>25</sup> 그래서 이런 것 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자본의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위기가 있지만 많이 지켜지게 꿈의 인식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았어요

건축틈새\_맑음 : 그리고 아예 자체적으로 땅값이 싼 망우동과 같은 공간을 빌리고 전시를 하는 흐름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건축가 분이 발표를 하시는데 미술계의 흐름이 자기들에게는 신기하고, 예술가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하는게 건축 대에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한 게 생각나네요

김성홍 교수 : 파이팅이 더 있는 거 같아요. (하하) 임흥순 작가 아시죠?<sup>26</sup> 예전에 우리 학교에 오셔서 강연하셔서 끝나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 이야기 들으니, 건축가들은 굉장히 배가 불렀더라 구요.

맑음 : 임흥순 작가님 저희도 베니스 비엔날레 작품 구로공단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더라 구요.<sup>27</sup> 그래서 저희 엄마가 구로구 도서관에서 임흥순 작가님이 구로구 투어를 하셨는데, 엄마가 빨리 오라고 해서 갔더니 임흥순 작가님이시더라 구요. 하하 되게 좋은 분 같으셨어요

---

<sup>25</sup> 본 문장에 '민간 거버넌스'는 사람들의 참여로 운영이 되는 형태를 의미하며, 공동위원단 제도는 기획자들의 일방향적인 센터의 운영과 기획이 아닌,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위원단을 꾸려 운영하고 기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sup>26</sup> 임흥순 작가는 미술작가이자 영화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1969년 생의 중년 작가이다. 주로 노동자들의 작업과 이와 결부된 사회와 정치 작업에 대해 다룬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비념>, <위로공단> 등이 있다.

<sup>27</sup> 본 문장에서 이야기되는 작품은 임흥순, <위로공단>으로 56회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을 받았으며, 이 작품은 구로공단에서 동남아까지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고있다.

김성홍 교수 : 네 한번 이야기 들어봤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더라구요. 와 건축은 그나마 부르주아구나.

맑음 : 저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보다는 예술가들도 돈에 관련 되 서는 되게 많이 낮설어 하고, 터부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기에 이런 것에도 어떻게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효경 : 그 시스템을.. 심소미 큐레이터가 왔을 때 마이크로 시티 랩 이야기하시면서 기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셨어요.<sup>28</sup> 유럽미술가들은 이 시스템을 가지고 노는 작업들을 많이 한다 하더라구요. 여기서는 법적으로 살수가 있고. 여기서는 세금을 안내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조금은 가지고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김성홍 교수 : 용적률 게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불법 탈법 경계해가지고 위에다가 건축가들이랑 같이 작업하면서 거기에 덧대면서 작품도 하는거죠. 그래서 서울의 옥상을 다해서 위에서 드론으로 찍고요. 이걸 탈법은 아니니까 (하하)

맑음 : 그래서 그분이 재밌게도, 큐레이터들은 보통 골방에서 작업을 열심히 하세요. 심소미 큐레이터분은 여러분이 기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성홍 교수 : 그래요 진짜 그런 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실에서 빌붙어서 밥값은 아껴가면서.

맑음 : 제가 미술 쪽에 있다가 건축 쪽으로 왔을 때, 이 자본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을 못했던거 같더라구요.

예술가들의 경우는 보통 기금을 받고 작업을 하는데, 두 번째 담화에 왔던 차지랑 작가가 재미있었던데, 상상마당에서 일년에 두 번 정도 젊은 작가들에게 돈을 주고 지원해주는데,

---

<sup>28</sup> 심소미 큐레이터의 마이크로시티랩은 세번째 담화에 나온다.

차지량 작가가 받아서 했는데 제목이 상상바닥 인 거예요.<sup>29</sup> 그래서 상상마당에 입사 지원하는 내용으로 낸 거예요. 책상에 모니터 하나를 달고 귀여운 캐릭터가 있고 신발과 넥타이를 다 매어주었어요. 제가 거기서 보면서 이 상상마당이 상상을 꾸려준다는데, 오히려 운영을 보면 상상바닥에 있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다 생각했어요. 제가 거기에서 일했던 간지러운 것을 긁어줘서 좋았어요.

김성홍 교수 : 논문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천 세대 설계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택 법으로 부대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그 안에 어린이시절, 놀이터 뭐 이런걸 다해요 그런데 십만 제곱 미터 하는데 그런 건 대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건축가들이 그것만 해도 되게 일이 많은데 운영상 그게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또 기부 체납이란 게 있어요.<sup>30</sup>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아파트 용적률이 230인데 240을 주는 거예요 그럼 10프로를 공공에 기부체납으로 받아요 그럼 등기가 공공으로 넘어 오는 거예요.<sup>31</sup> 아파트 단지 안의 공간이 그런데 그걸 받는 공무원들이 별생각이 없어요. 그 10프로를 받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술 기금으로 받는다면, 혹은 돈 말고 10만 제곱 미터 안에 어떤 단지 안에 작가들이 작업하게 할 수도 있구요. 건설자본 중에서 0.0001프로만 가져와도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이런 건 파이팅을 할 필요도 있죠. 이와 관련되어서 엄청 논문이 많아요. 엄청난 돈들이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 생각 없이 지어지는 거예요. 참 가끔 마음이 아파요.

건축틈새\_효경 : <용적률 게임>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기획하게 되면 정말 많은 현실을 보게 되더라 구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간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현실을 더 잘 알고 튼튼히 하여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큰 힘과 물맷돌이 되었던 좋은 전시를 기획하여 주심에 늘 감사해요.

---

<sup>29</sup> 차지량 작가는 KT&G 상상마당 다방다방 프로젝트 2015년 <제 2회 시스템플레이닝 : 내년계획>전에서 <상상바닥> 작품을 선보인바 있다.

<sup>30</sup> 기부체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용어사전』, 방경식, 2011. 5. 24., 부연사. 참조)

<sup>31</sup> 등기란 공적 구속력을 가지는 장부에 권리나 권리의 주체, 재산의 귀속 등의 법률관계에 대해 기록하는 등기라고 한다. (『사회복지학사전』, 이철수 외 공저, 2009. 8. 15., Blue Fish. 참조.)

건축틈새\_맑음 : 기획을 하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용적률 게임이라는 개념을 잘 몰랐으면 저는 지금까지 집에 들어가도 아무 생각이 없었을 텐데 제가 사는 집이나, 홍대 근처에 밀집주거 형식으로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더불어,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 드립니다.